회 의 록

□ 회 의 명 : 2026년 11월 시청자위원회

□ 일　　시 : 2026. 11. 19.(목) 12:00

□ 장　　소 : 여수MBC 4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강문식 위원장,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김종은 위원, 천현진 위원, 이현규 위원, 김대희 위원, 최태민 위원 (이상 8인)

□ 불참위원 : 박종일 위원, 박배연 위원, 이지호 위원(이상 3인)

□ 여수MBC : 대표이사 사장, 경영심의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이상 5인)

2026년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발언내용

○ 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많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준비해 온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했으면 합니다.
어느덧 한 해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막을 내린 뒤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여수산단의 산업재편과 지역경제,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역방송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지, 또 지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11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 대표이사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현규 위원님께서 회사 인사에 따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시게 됐는데, 그동안 시청자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현 콘텐츠센터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센터장
11월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에는 고흥 관련 특집 프로그램 「지금은 고흥」을 제작 · 방송했습니다.
고흥 유자축제와 관련해서는 「트로트클라쓰」 개막 축하쇼를 11월 12일 녹화했으며, 2부작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수상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해 특집으로 방송한 「당신의 동화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OTT · 웹콘텐츠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11월 30일 시상할 예정입니다.

지역MBC 공동제작 프로그램 「한국의 둘레길」도 지난달 방송문화진흥회 지역프로그램대상 은상 수상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지역발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같은 날 시상할 예정이며 대상 후보에도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둘레길」은 국회방송 우수프로그램 공모에도 선정돼 8편을 560만 원에 판매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테마기행 길」 공동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첫 촬영지역으로 순천을 선정했습니다.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순천만, 낙안읍성, 선암사,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동천 등 지역 명소를 촬영하고 있으며 12월 하순경 전국 방송할 예정입니다.
11월 21일에는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순천 시민 화합 페스타」를 진행합니다. 오후 3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에는 광주 · 목포 · 여수MBC가 공동으로 광주김치대축제 생방송을 편성합니다.
DMB와 관련해서는 장비 유지 · 보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9일부터 6개월간 운용휴지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 목포 · 전주MBC가 함께 운용휴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시청자 민원과 이용상황 등을 검토해 폐국 절차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시청자평가원의 의견과 시청 소감 등을 방송에 반영하는 「미디어비평 인사이트」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종료 후 성과와 한계, 사후활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 「라디오전망대」의 로컬썰전과 이슈첵 등을 통해 행사 운영과 폐막 이후 과제를 지속적으로 다뤘습니다.
여순사건 기획보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장기기획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과 관련해서도 여러 아이템을 통해 특별법 개정과 정부 지원 문제 등을 다뤘으며, 80주기를 대비한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사업을 통해 여순사건 관련 아날로그 자료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활용한 시청자 서비스와 캠페인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신산업 변화와 지역 중소기업 · 고용에 대한 설명형 보도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반도체 고부가 화학소재 거점 전환, 지역 청년 정착 문제 등을 「라디오전망대」에서 다뤘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시청자 의견으로 TV · 라디오 애국가 음원을 2018년 버전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이를 수용해 음원을 변경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박광수 보도센터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센터장

10월 22일 이후 주요 취재 · 보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수세계섬박람회 마무리와 폐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11월 3일부터 「섬박람회, 무엇을 남겼나」라는 제목으로 연속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방문객과 지역 상가 매출 등 통계자료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250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갖는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반면 행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부실 · 파행 문제, 폐막 이후 시설 사후활용, 공사업체 대금 미지급 문제 등도 함께 다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도 취재했습니다.

통합 이후 공공기관 존속 법인의 상당수가 광주에 편중되는 문제와 주사무소 배치 문제 등 구조적 불균형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산업위기 대응과 동부권 대안산업도 주요 취재대상이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 사업재편이 기업 간 자산조정과 기업결합 심사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고, 광양만권 이차전지산업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추진상황도 보도했습니다.

특별시와 각 기초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취재했으며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요청한 순천 국제포럼도 별도 아이템으로 다뤘습니다.

12월에는 각 자치단체의 202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을 살펴보고 재정건전성과 선심성 · 불요불급한 예산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폐막했지만 사후활용 청사진과 대금 미정산 문제 등이 남아 있는 만큼 후속 취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상황과 취약계층 지원대책도 살펴볼 예정이며, 올해 전남 동부권의 주요 현안을 결산하고 내년도 신년기획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순천의 산업과 생태가 공존하는 정책을 조명해 달라는 의견과 관련해 순천 국제포럼과 생태경제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과 · 한계와 사후활용 문제는 폐막을 전후해 통계로 본 성적표, 시민 참여, 사후활용 문제, 여수시정의 향후 과제 등을 연속적으로 다뤘습니다.

신산업 변화에 따른 지역 대응 상황 역시 광양만권 이차전지산업과 동부권 주력산업 전환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의견으로는 공공기관 광주 쏠림 보도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통폐합 과정의 광주 법인 존속 편중과 주사무소 배치의 제도적 문제를 짚은 보도였다는 취지를 안내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사업체 대금 미지급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

는 11월 11일 뉴스데스크에서 피해현황과 책임 공방 등을 이미 보도했음을 안내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방송된 뉴스데스크 논평과 「뉴스&이슈」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공정성과 객관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 의결했습니다. 향후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 시 관련 내용을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근 산업경제부시장 인터뷰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 등 동부권 주력산업이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만큼 일회성 인터뷰로 끝내기보다 향후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실제 진척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용우 방송사업센터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방송사업센터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채봉문학상은 홍나영 작가의 「앙상블, 바다를 울리다」를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책 발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 청소년봉사상 공모도 마감했습니다.
개인 15명과 단체 8팀이 접수했으며,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최종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여수MBC 공개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말 공연으로는 연극 「쉬어매드니스」를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진행합니다.
올해 대형 뮤지컬 공연을 두 차례 진행했으나 경기침체와 유료 공연시장의 전반적인 위축 등으로 기대보다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말 공연은 학교 단체 예매 등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흥과 여수 등 동부권 각 지역에 문화재단이 잇따라 설립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공모사업이나 지역 문화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존 지자체 문화예술부서와의 업무 중복 등 여러 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권 문화재단의 역할과 지역 문화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어서 여수MBC 뉴스, TV, 라디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정 위원

먼저 여수MBC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다소 거친 표현의 글이 올라오더라도 정중하고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한 가지 홈페이지 관련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라디오전망대」 작가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전 작가 이름이 표시돼 있습니다. 현재 담당자에 맞게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여수MBC 뉴스는 보도자료를 단순히 전달하기보다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취재한 보도가 많아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과와 문제점을 냉정하게 평가한 보도, 국립의대 추진과정에서 교수 · 시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짚은 보도 등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긴장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숨은 국유지를 활용해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연결한 보도,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 관련 보도, 미분양 아파트 증가 문제 등 생활현장과 밀접한 보도도 좋았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활용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포MBC 뉴스를 여수 로컬뉴스에 한 꼭지씩 편성할 경우 동부권에서도 쉽게 취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안보다는 서부권만의 현안이나 동부권 주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을 선정하면 지역 간 이해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 동안 제기했던 주요 현안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결산형 보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순사건 트라우마센터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당초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등 기존에 보도한 사안들의 이후 변화와 결과를 확인하는 후속 취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미디어 관련 법안이 지역MBC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슈 프리뷰」에서 다음 한 주의 주요 현안을 미리 소개하는 방식도 매우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순사건과 관련해서는 향후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80주기가 이어지는 만큼 여수MBC가 지역의 공공기관 · 지원단체 등과 연계해 장기적인 특별기획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숙 위원

앞으로 동절기 취약계층과 민생현장을 취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계절의 흐름과 맞춰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자원봉사단체나 시민들이 취약계층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하면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생태법인 관련 내용을 보도해 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생태법인은 자연을 단순히 인간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바라보려는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에서는 자연의 입장을 대신해 이야기해 보는 '만물의 의회'와 같은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이나 바람, 동물 등의 입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의견을 표현하면서 자연과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생태법인이 단순히 환경보호의 제도적 장치라는 차원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도라는 점까지 후속 보도에서 함께 조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다음은 김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은 위원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지 활용 관련 보도를 저도 매우 좋게 봤습니다.
이런 사례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후속 취재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목포MBC의 수능 관련 뉴스를 네트워크 보도로 편성한 부분은 동부권에서도 충분히 취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서부권 뉴스는 동부권 주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서부권만의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공통 현안을 다룰 경우에는 동부권 상황도 함께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능 현장 LTE 연결도 잘 봤습니다. 다만 현장 음성이 다소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향후 현장 중계 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산단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계속 이어지는 만큼 지역사회의 나눔 활동과 함께 관심 있게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자체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자들이 전문적인 촬영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다 보니 방송에 활용하기 어려운 영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수MBC 카메라기자들이 지역 기업이나 기관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영상촬영 방법이나 방송에서 활용 가능한 영상의 구성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면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와 우주산업 등 신산업 관련 보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신산업 역시 철강과 석유화학 등 기존 기반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을 조명하는 것과 함께 철강 ·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의 역할과 경쟁력 회복 노력에도 균형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다음은 천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현진 위원
최근에는 여수MBC 방송을 주로 유튜브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약 1분 30초 분량의 헤드라인 뉴스가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짧은 시간에 그날의 주요 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현재는 일반 가로형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전남 동부권 주요 뉴스를 간추린 세로형 숏폼 콘텐츠 형태로 제작한다면 확산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합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MBC가 지역사회에서 공영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체계에서도 공적 미디어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MBC가 제도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현재도 어려운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법안에서 강조하는 지역성과 다양성의 구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MBC가 관련 제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현규 위원
회사 인사에 따라 12월부터 충남 대산사업장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지역뉴스와 여수MBC 프로그램을 이전보다 많이 접하게 됐고, 지역 콘텐츠가 기록으로 축적되는 것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 된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최근 회사 상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임금 · 단체협상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11월 초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가결돼 마무리됐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 문제도 현안으로 제기됐습니다.
공장 일부 라인이 축소되면서 포장 · 출하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약 15명의 일감이 사라질 상황이 있었으나 협력업체와 사내하청지회 간 협의를 통해 전원을 지역 내에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일단 정리됐습니다.
다만 사업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를 원청과 협력업체가 어떻게 부담

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이 장기간 악화되면서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 고용의 경직성, 사업 축소에 따른 비용부담 등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MBC에서도 산단 고용문제를 다룰 때 근로자의 고용안정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여건과 산업경쟁력까지 함께 살펴 균형 있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다음은 김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위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통폐합 논의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문제입니다.
여수에서는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약 20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추진했지만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람회장 국제관 A · B · C · D동 일대를 활용한 아레나 공연장 유치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항만공사 소유인 만큼 향후 항만공사가 다른 항만공사와 통합될 경우 박람회장 관리와 사후활용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만공사 통폐합 논의 자체뿐 아니라 여수세계박람회장이라는 지역의 중요한 자산을 향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투자할 것인지, 지역의 의사가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레나 유치 등 새로운 활용방안이 논의된다면 중단된 사후활용 용역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수MBC에서도 항만공사 통폐합이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수능과 지역 교육 문제입니다.
AI의 발전으로 기존처럼 지식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교육방식의 의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학력고사와 수능을 거치면서 학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학생의 창의성 확대 등을 목표로 변화해 왔는데 AI 시대에는 현재의 수능과 고등학교 교육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뒤 고등학교 3학년의 남은 2~3개월이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대학의 여러 학문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의대 등 일부 인기학과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학생의 다양한 진로 선택과 지역대학의 경쟁력, 지역의 인재양성을 연결해 살펴보는 보도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기금 문제입니다.
향후 통합특별시가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정부의 통합지원 재원을 어떤 산업과 지역에 배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반도체 등 이미 방향이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재원을 동부권 산업과 인프라, 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합니다.
동부권에는 기존 석유화학 · 철강산업뿐 아니라 이차전지와 우주항공 등 다양한 산업기반이 있고 지역대학의 연구역량도 있습니다.
여수MBC가 행정 · 재정 · 산업 전문가와 함께 통합기금이 동부권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최태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민 위원
순천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과 관련해 의료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발표된 계획을 보면 의과대학 정원은 60명이며 2030년 첫 입학생을 받고, 2032년에는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개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포대와 통합을 전제로 100명 규모가 논의됐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60명 배정을 아쉽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의료교육 측면에서는 학생 수만 늘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의학교육에서는 학생 1명당 약 10병상 정도의 대학병원 병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실제 상당수 의과대학은 그보다 많은 약 20배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주 · 전남 지역의 기존 의과대학도 학생 수 대비 교육병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편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가 각각 약 125명 정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대병원은 약 1,200병상, 조선대병원은 약 900병상 수준이어서 학생 수 대비 병상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순천대가 60명 정원으로 출발해 500병상 대학병원을 개원하더라도 학생 한 명당 약 8병상 수준입니다.

더욱이 신규 대학병원은 개원 후 충분한 환자 수와 다양한 질환군을 확보해 안정적인 임상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원을 확대하려면 우선 대학병원이 제대로 자리 잡고 양적 · 질적으로 충분한 임상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이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어떤 진료 분야 때문에 환자를 광주나 수도권으로 전원하고 있는지 현장의 의료인들에게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 산모, 소아중환자 진료 등 지역에서 부족한 분야가 무엇인지,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어떤 이유로 환자를 외부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지 등을 지역 의료진을 통해 확인하면 앞으로 대학병원이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병원 의료진과 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등의 목소리를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들어보는 심층기획을 제안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가 있는데 동부청사는 순천청사가 아니라 권역 명칭을 사용하면서 서부권 청사는 왜 ‘서부청사’가 아닌 ‘무안청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측에서 추가로 설명하거나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센터장
박소정 위원님과 천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미디어 관련 법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과 IPTV 등은 각각 다른 법률과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OTT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매체별 규제와 지원체계가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고 공적 역할을 하는 미디어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통합적인 시청각미디어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법조문을 소유구조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서울MBC는 공적 미디어 범주에 포함되지만 지역MBC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MBC도 지역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공적 지원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관련 법안에 지역MBC의 역할과 지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광양항만공사 통폐합이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취재 중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김종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업 · 기관 홍보담당자 대상 영상촬영 교육도 기본적인 촬영기법이나 방송에 활용하기 좋은 영상구성 등을 카메라기자를 통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해 방송사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연락을 주시면 가능한 한 직접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립의대, 통합특별시 지원재원 등 여러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한 번 보도하고 끝내기보다 이후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의견들도 사측에서 잘 검토해 앞으로의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단순히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변화와 결과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는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회의가 올해 마지막 회의인 만큼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1월 시청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